

패션비즈니스 제28권 5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8,  
No. 5:160-169, Nov. 2024  
[https://doi.org/  
10.12940/jfb.2024.28.5.160](https://doi.org/10.12940/jfb.2024.28.5.160)

Corresponding author

Ga Young Huh  
Tel : +82-31-659-8271  
E-mail : gyhuh@ptu.ac.kr

#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을 통한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 분석

허가영\*

\*평택대학교, 패션디자인및브랜드학과 조교수

## Analysis of Rei Kawakubo's Designs Through the Lacanian Jouissance

Huh Ga You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Branding

### Keywords

Rei Kawakubo,  
jouissance, fashion design,  
psychoanalysis,  
Lacanian theory,  
pleasure principle  
레이 가와쿠보, 주이상스, 패션  
디자인, 정신분석학, 라캉이론,  
쾌락 원칙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interpret Jacques Lacan's concept of *jouissance* as a creative driving force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and to analyze Rei Kawakubo's radical designs through this lens. Lacan's *jouissance* is a complex concept that transcends general pleasure theory. It has gained attention in sociocultural contexts where conventional phenomena are difficult to explain. This approach has proven especially valuable in analyzing artistic developments that defy interpretation through existing aesthetic theories. In this research, I derived three aspects of *jouissance*: 'pleasure of pain', 'pleasure of forbidden', and 'pleasure of lack'. I then used them to analyze Rei Kawakubo's designs. Specifically, I systematically analyzed Kawakubo's avant-garde and unconventional designs appearing in each collection by interpreting baffling and uncomfortable designs as 'pleasure of pain', departure from existing fashion conventions as 'pleasure of forbidden', and infinite creative drive as 'pleasure of lack'.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t explored how the concept of 'pleasure', a fundamental human desire, was reflected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It also presents a new perspective that reinterprets *jouissance* as a fundamental driving force in fashion design. This approach strengthens the view of fashion design as a medium, reflecting human needs and desires. It can contribute to designers exploring more fundamental sources of inspiration in their creative processes. By introducing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to fashion design research,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present novel possibilitie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contribute to expanding the theoretical horizon of fashion design.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패션은 신체 보호와 장식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넘어서 문화적, 예술적 담론의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과 심리가 투영되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현대 패션에서는 전통적인 미적 기준이나 관습적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불편함과 매력을 동시에 지닌 양가적 특성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는 작용 가능한 예술 작품으로서 전통적인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화적 및 예술적 담론을 생성한다. 이는 인간 내면의 근원적 욕망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심리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예술적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가 내재된 복합적인 현대 패션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크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에 주목한다. 라캉은 20세기 후반 정신분석학, 철학, 언어학, 문화 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로, 그의 주이상스는 인간 무의식에 억압되고 소외된 주체로서의 충동을 다루며, 일반적인 쾌락 원칙을 초월한 욕망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주이상스 개념은 현대 패션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모순된 심리적 욕구를 해석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현대 패션을 주이상스 개념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는 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와쿠보는 전통적인 의복 개념과 실용성 기준을 뛰어넘는 디자인을 창조하며, 기존의 미적 기준에 도전하면서도 독창적인 예술적 위상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캉의 주이상스 이론을 활용하여 레이 가와쿠보의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패션 디자인을 분석하고, 그 내재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라캉의 주이상스 이론을 통해 현대 패션 디자인의 혁신성과 예술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패션이 현대 사회의 문화적 및 미학적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주이상스 이론 자체 또는 이를 일반적인 문화현상, 문학, 예술과 연관 짓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Kang, 2021; Kim, 2009; Cho, 2020), 시각 예술 분야에서는 Foster(1993)가 초현실주의 예술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주이상스 개념을 활용한 바 있다. 패션 분야에서 주이상스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은 주로 성차 이론이나 에로티시즘적 측면에 주목해왔다. 예를 들어, MacCannell(2016)은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과 성차 이론을

현대 패션에 적용하여 남성적 주이상스의 지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Yang and Lee(2023)는 에로티시즘 패션을 주이상스와 응시론과 연관지어 연구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하여 주이상스 개념을 급진적 성향의 패션 디자인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그 함의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레이 가와쿠보의 전위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주이상스 개념이 어떻게 현대 패션의 혁신성과 예술성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패션이 현대 사회의 문화적, 미학적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패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현대 패션 현상을 주이상스의 렌즈를 통해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캉의 원전과 관련 2차 문헌을 통해 주이상스 개념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을 고찰하는 문헌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이상스 특성을 중심으로 가와쿠보의 작품집과 전시 카탈로그 등의 작품을 사례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의 범위는 라캉의 이론에서 주이상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 중 대표작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17년 페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시 출판 서적인 『Rei Kawakubo/ Comme des Garçons: Art of the In-Between』와 『Rei Kawakubo: For and Against Fashion』 서적에 포함된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선정된 작품들은 연구자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며, 본 연구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가와쿠보의 다른 작품에도 확장 적용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을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에 적용하여 현대 패션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패션 연구와 차별화되고, 현대 패션의 혁신성과 예술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패션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 패션이 현대 사회의 문화적 및 미학적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주이상스 개념 및 특성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이론은 현대 사회와 문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라캉은 인간의 무의식과 언어 구조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이론이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되어 철학적 분석과 해석의 기초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복잡한 현대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주이상스(jouissance)'이다. 라캉이 의미하는 주이상스는 사전 그대로의 의미인 즐거움으로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개념이다(Braunstein, 2021).

라캉의 이론에서 주이상스 개념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쾌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1958년 이후로 점차 일반적인 쾌락의 의미와 분리되면서 라캉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라캉은 주이상스를 쾌락 원칙을 넘어서 쾌락으로 정의하며(Lacan, 1998), 이는 단순한 만족이나 즐거움을 넘어서는 강렬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포함한다.

주이상스 개념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쾌락원칙은 본질적으로 흥분을 최소화하려는 경제적 원리로, 긴장의 증가와 감소를 쾌-불쾌의 척도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Samuels, 2019).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고, 죽음 충동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놀이 중 반복적으로 엄마의 부재라는 불안한 상황을 재현하는 경우처럼(Lacan, 2019),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 불쾌한 상황을 반복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프로이트는 이를 죽음 충동과 연결된 쾌락으로 해석하였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삶 충동과 죽음 충동을 별개로 보지 않고, 삶 충동이 죽음 충동 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욕망을 지속하게 하는 충동 자체가 죽음 충동이며, 그 안에 삶의 충동이 내재해 있다는

점이 라캉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따라서 주이상스는 죽음 충동에 위치한 쾌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Figure 1).

주이상스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제임스 러셀(James Russell)의 감정 서컴플렉스 모델(emotion circumplex model)은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Figure 2). 이 모델에 따르면 감정은 쾌-불쾌(pleasure-displeasure)와 각성-비각성(arousal-nonarousal)의 두 축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일반적인 쾌의 상태는 낮은 각성의 쾌와 높은 각성의 쾌로 구분될 수 있다. 낮은 각성의 쾌에는 편안함, 만족감, 평온함 등이 포함되며, 높은 각성의 쾌에는 행복, 흥분, 놀라움 등이 해당된다. 주이상스는 이러한 일반적 쾌의 영역을 넘어서며, 불쾌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낮은 각성의 불쾌에는 우울함, 슬픔, 지루함 등이 포함되고, 높은 각성의 불쾌에는 분노, 두려움, 불안 등이 해당된다. 주이상스는 이처럼 쾌와 불쾌, 높은 각성과 낮은 각성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고통을 넘어서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경험을 포함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쾌락이나 즐거운 고통과 같은 양가적 감정을 수반한다.

라캉의 이론에 기초하여 주이상스 개념을 살펴보면, 이는 일반적인 쾌락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쾌락원칙을 넘어서며, 단순한 만족이나 즐거움을 초월하는 복잡한 경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주이상스의 특성을 '고통의 쾌', '금지된 쾌', '결핍된 쾌'로 도출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고통의 쾌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고통이 수반되는 이중적인 쾌락이라는 점이다. 라캉은 '쾌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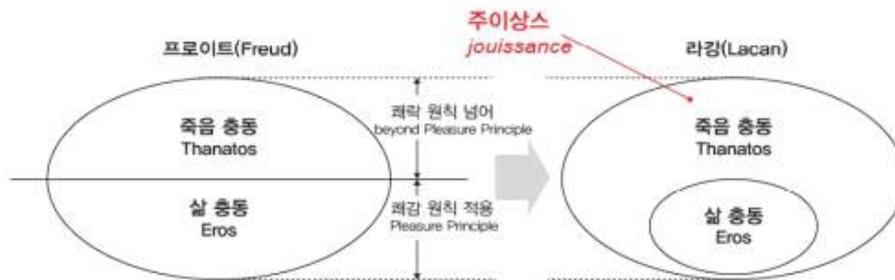


Figure 1. Death Drive and Jouissance (Huh, 2016,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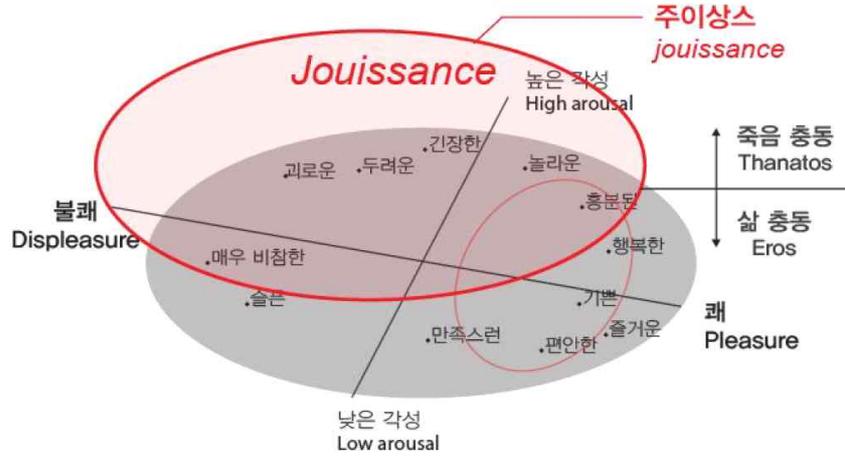


Figure 2. James Russell's Emotion Circumplex and Jouissance (Huh, 2016, p.7)

은 고통이다(Lacan, 2013)라고 언급하며, 쾌락과 고통의 불가분한 관계를 강조한다. 그는 더 나아가 “내가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 - 신체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의미에서 -은 항상 긴장의 본질, 강요의 본질, 지출의 본질, 심지어 착취의 본질을 지닌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수준에서 쾌락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 고통 수준에서만 유기체의 전체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 것이다”(Lacan, 2013)라고 설명한다.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은 쾌락과 고통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양가적 상태로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흥분의 최소상태가 아닌, ‘주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치명적인 쾌락’(Glowinski, 2001)을 의미한다. 주이상스는 주체가 살고자 하는 삶의 충동이 아닌, 주체를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 충동에서 작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주체에게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주이상스는 고통으로 체험된다.

프로이트가 죽음충동과 연관된 쾌락을 발견했다면, 라캉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주이상스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만들어 냈다. 라캉의 주이상스는 상징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주체에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통의 쾌락으로 경험된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상태와 관련되어(Nobus, 1998) 있으며, 불쾌로 경험되고 고통이 따르지만 역설적이

게도 이것이 주이상스의 본질적 특성이 된다.

주이상스는 설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경험으로, 이 과정에서 폭력성, 추함, 고통, 혐오 등의 감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극단적 경험이 주이상스의 핵심을 이루며, 고통을 함의하는 쾌락이기 때문에 ‘고통의 쾌’라는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은 단순한 쾌락이 아닌, 고통과 쾌락이 복잡하게 얽힌 강렬한 심리적 경험을 설명하며, 기존의 상징체계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독특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2) 금지된 쾌

주이상스가 일반적인 쾌락과 구분되는 두 번째 특성은 금지된 쾌이다. 라캉은 “주이상스 그 자체는 말하는 자에게 금지되어 있다”와 “법은 금지 자체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Lacan, 2019).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캉의 실재계, 상상계, 실재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재계는 주체의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원초적이고 미분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상징화되지 않은 낯것 그대로의 상태로, 주체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영역이다. 상징계에 진입하기 전 주체는 상상계를 거치는데, 상상계는 거울 단계에서 형성되는 자아의 영역으로, 주체가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주체는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아를 구축하지만, 이는 환상에 기반한 것이

다. 그리고 주체의 탄생은 상징계의 진입으로 본다. 상징계는 언어와 법, 사회적 질서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주체는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사회화되고 문화의 일원이 되지만, 동시에 실재계와의 직접적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주이상스는 이 세 가지 질서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상징계에서 법과 질서로 금지되는 쾌락으로 간주된다. 주이상스는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될 수 없는 쾌락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쾌락인 것이다. 즉, 법과 질서는 상징계에 속하고, 주이상스는 실재계에 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주체가 탄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의 영역에 들어서지만, 역설적이게도 법은 금지를 통해 작동하며, 이 금지가 주체를 끝없이 욕망하게 하는 것이다. 주이상스는 언어 세계인 법의 통치 아래서 주체를 욕망하게 하는 구조를 형성한다(Nobus, 1998). 결론적으로, 라캉의 이론에서 주이상스는 실재계, 상상계, 상징계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며, 언어와 법의 영역인 상징계에 의해 금지되지만 동시에 그 금지를 통해 주체의 끝없는 욕망을 추동하는 역설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3) 결핍된 쾌

주이상스의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결핍된 쾌의 특성도 상징계의 진입하는 주체와 연관된다. 라캉의 이론에서 주체는 언어의 상징 과정에서 탄생하며, 실재계에 존재하는 주체가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거세(castration)된 쾌를 주이상스로 이해한다. 동물적 본능을 지닌 실재계에 위치했던 주체는 언어 작용과 구조에 의해 원초적 욕구가 결핍된 존재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Huh, 2016).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는 영원히 완전한 주체가 아닌 결핍된 주체가 되며, 이때 결핍된 쾌를 주이상스로 보게 된다. 주이상스는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이지만, 그 시도는 항상 실패로 귀결된다. 이 실패 자체가 주이상스의 본질을 형성한다. 주체는 이 결핍을 채우려 하지만 결코 완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핍된 쾌로서의 주이상스는 주체에게 지속적인 욕망의 원인이 되며, 이는 주체를 계속해서 추동하게 만든다.

주이상스의 경험은 죽음과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 라캉은 주체가 실재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것을 주체의 탄생으로 보았으며, 이때 실재계에서의 원초적인 쾌는 상징계의 질서와 법에 의해 제한되지만, 없어지지않고 잔존하여 주체를 끝까지 열망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주이상스는 상징계의 질서에서는 용인되지 않지만, 인간이 상징계 진입 이전의 상태에서 추구하는 순수한 쾌의 모습이기도 하다. 라캉은 실재를 상징화를 거부하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며, 문화, 법, 질서, 규범이 해당되는 상징계를 벗어나있기 때문에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선형적인 원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제의 개념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 다르게 생각하는 원동력이 되는 주이상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주이상스의 특성을 Table 1로 정리할 수 있다. 주이상스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복합적인 개념으로, 고통, 금지, 결핍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그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쾌는 고통을 감수하고 추구하게 되는 역설적 쾌락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주체에게 고통을 주지만 피하거나 멈추지 않고 반복하게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금지된 쾌는 금지된 한계를 넘는 데서 오는 쾌락으로, 제한된 행위에 대한 위법을 통해 얻는 쾌의 측면을 포함한다. 사회적 또는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금기에 의해 충동은 더욱 강렬해지고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결핍된 쾌는 영원히 채워지거나 만족될 수 없는 쾌락으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이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Jouissance

Concept of jouissance	Characteristic
A pleasure that arises from enduring or facing pain, often paradoxically fulfilling.	Pleasure of Pain
A pleasure derived from engaging in something forbidden or restricted, which heightens desire and excitement.	Pleasure of Forbidden
A pleasure that is driven by feelings of lack or absence, seeking fulfillment but remaining unsatisfied.	Pleasure of Lack

를 완전히 채우지 못해 충동이 계속 유지되는 특성을 보인다.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거나 물질적 소유를 갈망하지만 만족이 불완전한 상태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쾌락 욕구를 반영하며,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고 금기와 제한이 쾌락을 강화하며 결핍에서 오는 욕망이 끝없이 순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III. 레이 가와쿠보 디자인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주이상스의 3가지 특성인 ‘고통의 쾌’, ‘금지된 쾌’, ‘결핍된 쾌’를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에 적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가와쿠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불완전성, 비대칭, 해체와 재구성, 전통적 미의 기준과 의복의 기능성에 대한 도전 등의 특징을 주이상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1. 고통의 미학: 낯섦과 새로움

레이 가와쿠보는 고통없는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Bolton, 2017), 새로운 것은 언제나 자극과 충격이 따른다고 하였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감각적 불편함을 야기하며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자극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주이상스는 죽음 충동에 의해 고통으로 체현되며, 가와쿠보의 작품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의 ‘이별의 의식’이라는 컬렉션이었다. 이 컬렉션에서는 인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없도록 디자인하여 혼란과 불편함을 유발한다(Figure 3). 이러한 디자인은 착용자에게 신체적 불편함을 주면서도 보는 이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강렬한 감정을 유발한다. 이는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에서 이중적인 특성인 주이상스의 ‘고통의 쾌’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와쿠보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 철학은 기능성보다 착용자에게 자신감과 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신(spirit)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Bolton, 2017). 이러한 철학은 그의 많은 디자인에서 기능성을 배제한 형태로 나타난다. 상업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패션과는 달리, 가와쿠보의 디자인은 고통을 통해 역설적인 쾌락을 탐구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igure 4에서는 아무렇게나 묶여진 부푼 덩어리들이 붙어 있어 전통적인 의복의 기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형태를 보여준다. Figure 5에서는 길다란 사각형 구조 안에 인체가 갇혀 있어 신체의 형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만들며, 이는 착용자와 관객 모두에게 불편함을 유발한다. 이러한 작품은 기존의 미가 아닌 새롭게 정의된 독창적인 미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고통의 쾌의 측면이 나타나는 이러한 컬렉션은 매번 지속되며, 이를 통해 다른 디자이너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미학적 세계를 구축해왔다. 가와쿠보는 고통과 불쾌함이라는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역설적으로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쾌는 즐겁고 평온한 감정을 유발하여 반복적으로 추구되는 반면, 불쾌는 회



Figure 3. Ceremony of Separation Collection, Autumn/Winter 2015-16 (Butler, 2023, p.168)



Figure 4. Ceremony of Separation Collection, Autumn/Winter 2015-16 (Bolton, 2017, p.180)



Figure 5. Ceremony of Separation Collection, Autumn/Winter 2015-16 (Bolton, 2017, p.184)

피의 대상이 되어 반복을 피하게 된다. 그러나 가와쿠보의 컬렉션은 이러한 전통적인 감정 반응에 도전하며, 불쾌함 속에서 오히려 강렬한 쾌락과 미적 경험을 이끌어낸다. 그의 디자인은 단순히 만족스럽고 이완된 상태를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긴장감과 불편함을 통해 관객에게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자극과 환기를 제공한다. 이는 패션이 단순히 의복을 넘어, 인간의 감정적·감각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와쿠보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을 결합하여 매번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적·감각적 경험을 선사하며, 이를 통해 패션 디자인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낯선 자극 속에서 불러일으켜지는 새로움은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2. 위반의 미학: 경계성의 재정의**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 주체가 언어와 법으로 구성된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주이상스(jouissance)는 금지된다. 이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과 규범이 특정 행위나 상황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예술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금지와 제한을 넘어서는 시도들이 종종 혁신적인 작품이나 새로운 미학적 전환점을 제시한다. 레이 가와쿠보는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탐구한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이다.

가와쿠보는 패션계에서 금기시되던 요소들을 과감히 도입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항상 확립된 가치, 관습, 그리고 일반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부정함

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추구해 왔다’(Shreya, 2020)고 밝히며, 기존의 미적 기준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또한 ‘관습에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의무’(Bolton, 2017)라고 말하며,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미학을 창출하려 했다.

그의 1997년 컬렉션 Body Meets Dress, Dress Meets Body는 이러한 접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컬렉션은 복부, 엉덩이, 등과 같은 신체 부위에 패딩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이상적인 신체와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했다(Figure 6), (Figure 7). 가와쿠보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흥미롭지 않다, 사람들이 다른 미학과 가치를 갖기를 희망한다(Bolton, 2017)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미적 기준과 규범을 비판하고 새롭게 정의하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한다. 그는 규범화되고 일반화된 가치들을 위반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는 라캉이 얘기한 상징계의 질서이며, 이 상징계의 질서는 주이상스를 금지 시키지만 주이상스는 이 질서를 위반하고자 하는 속성으로 주체를 욕망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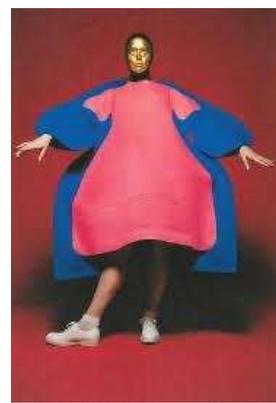
또한 ‘2 Dimensions’ 컬렉션은 인체를 완전히 무시한 의상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Figure 8). 패션이 단순히 인체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예술적 표현임을 강조했다. 가와쿠보는 Object/Subject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해체하고, 최대한 단순한 형태와 테크닉으로 인체와 의복 간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이를 통해 그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며 패션 디자인의 본질을 새롭게 탐구했다. 가와쿠보의 작품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조를 거부하고



**Figure 6.** *Body Meets Dress-Dress Meets Body, Spring/Summer1997* (Bolton, 2017, p.134)



**Figure 7.** *Body Meets Dress-Dress Meets Body, Spring/Summer1997* (Bolton, 2017, p.140)



**Figure 8.** *TWO Dimensions, Autumn/Winter 2012-13* (Bolton, 2017, p.127)

상충되는 요소들을 결합시키며, 고착된 관념을 유연하게 만들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창조 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금지된 결합에서 파생되는 균열을 통해 일종의 예술적 주이상스를 실현한다. 라캉의 이론에서 주이상스가 금지된 영역을 넘어서고자 하는 쾌락이라면, 가와쿠보의 디자인은 패션의 금기를 위반하며 새로운 미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은 기존 패션계에서 용인되지 않았던 요소들을 과감히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예술적 주이상스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Huh, 2016). 이는 예술 영역에서 제한과 금지의 위반이 어떻게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경계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다. 가와쿠보는 패션을 통해 사회적 규범과 미적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이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3. 결핍의 미학: 무한한 생성의 시작점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은 결핍된 쾌락이라는 라캉적 개념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주이상스가 상징계 진입 과정에서 결핍된 쾌락을 의미하지만, 그 결핍이 단순히 부정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가와쿠보의 불완전성과 의도된 공백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을 향한 창조적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의 주요 표현 방식은 ‘미완성, 불균형, 융합, 제거, 의도

부재’(Bolton, 2017)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기존의 세련된 이미지에 대한 반발로서 완성되지 않고 원시적이며 불안정한 요소들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에 자주 등장하는 훼손된 듯한 의상과 완성 처리가 되지 않은 의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Figure 9은 구멍난 블랙 스웨터로 누군가에게는 뜯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다른 차원을 열어주는 구멍이라고 레이가와쿠보는 설명한다(Bolton, 2017).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멋과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983년 SS 컬렉션 Patchworks and X는 가와쿠보가 구겨진 종이처럼 의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된 작품이다(Figure 10). 그는 일반적으로 의복 제작을 위한 스케치와 패턴메이킹의 과정을 배제한 채(Bolton, 2017) 원단의 거칠고 마모된 느낌을 살려 다른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Clustering Beauty 컬렉션의 Figure 11에서는 좌우 비대칭의 광목으로 제작된 드레스가 끝처리가 되지 않아 울이 풀려있으며, 마치 가봉상태의 의상처럼 보인다. 미완성된 의상은 상상력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추상적이고 무형의 형태는 예측 불가능한 창의적 결과물로 이어진다.

가와쿠보는 공백(void)과 공허함(emptiness)의 개념을 중요시했으며(Bolton, 2017), 이는 단순한 무(無)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라캉의 결핍된 주체 이론과 연결되며, 주체가 결핍을 메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동하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Figure 9. *Photograph of Holes, Autumn/Winter 1982-83, 1982*  
(Bolton, 2017, p.31)



Figure 10. *Patchworks and X, Spring/Summer 1983*  
(Bolton, 2017, p.47)



Figure 11. *Clustering Beauty, Spring/Summer 1998*  
(Bolton, 2017, p.50)

그는 패션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고 흥미도 없다고 언급하였고(Bolton, 2017), 그의 목표는 '전례 없는 완전한 새로움의 표현이었다(Bolton, 2017). 이러한 역설적인 접근은 주이상스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패션 디자이너로서 패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중심을 비움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가 추구하는 '0으로의 회귀'는 실세계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주이상스의 개념과 유사하게,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추구를 의미한다. 주이상스가 불가능한 만족을 향한 충동을 의미하듯, 가와쿠보의 작업 또한 완전한 새로움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볼 수 있다.

가와쿠보의 작품 세계는 도달 불가능한 영원히 걸쭉된 주이상스의 특성을 반영하며, 미완성과 불완전함에 대한 탐구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며, 패션을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자크 라캉의 주이상스개념을 통해 레이 가와쿠보의 혁신적인 패션 디자인을 분석하고, 현대 패션의 미학적, 사회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가와쿠보의 작품에서 주이상스의 세 가지 특성인 '고통의 쾌', '금지된 쾌', '결핍된 쾌'가 독특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통의 쾌' 측면에서, 가와쿠보의 디자인은 불편함, 추함, 혐오를 통해 역설적으로 새로운 미적 경험을 창출한다. 이는 주이상스의 '고통의 쾌'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일반적으로 패션이 추구하는 실용성, 유용성, 경제성 등의 개념과 상반되지만 독특한 미적 표현과 대중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지된 쾌' 측면에서, 가와쿠보는 패션계의 금기를 깨뜨림으로써 기존의 미적 기준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는 주이상스의 '금지된 쾌' 개념을 반영하며, 사회적 규범과 미적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결핍된 쾌' 측면에서, 가와쿠보의 지속적인 창조성과 새로움 추구는 주이상스의 '결핍된 쾌' 개념과 연결된다. 미완성과 불완전함에 대한 탐구는 끊임없는 창의성을 자극하고, 패션의 경계를 예술과 타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 철학이나 조형성을 조명해보기 위해 활용한 주이상스 개념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욕망하는 주체로서 추구하는 쾌락인 주이상스가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전위적이고

예술적인 의지를 해석하는데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이 가와쿠보의 특정 작품에 한정하여 주이상스적인 특성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와쿠보의 최신 컬렉션과 다른 혁신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에도 이러한 분석 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이상스 개념을 넘어 다양한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패션 디자인 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 나아가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을 중점으로 레이 가와쿠보의 전위적 디자인에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와쿠보의 작품에 내재한 있는 주이상스의 특성을 통해 현대 패션의 본질을 재해석하는 시도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와쿠보의 작품을 통해 현대 패션이 단순한 의복 이상의 복잡한 사회문화적 담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특히 주이상스 개념을 통해 현대 패션이 어떻게 쾌락과 고통, 욕망과 금기의 경계를 탐험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패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였다. 정신분석학적 분석틀은 패션을 연구하는데 빈번히 사용되어 왔지만, 본 연구는 주이상스라는 개념을 새로운 접점으로 주목하여 불편하면서도 매력적인 패션 현상을 이해해보려고 시도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 References

- Bolton, A. (2017). *Rei Kawakubo/Comme des Garçons: Art of the In-Between*. New York: The MET.
- Braunstein, N. A. (2021). *Jouissance: A Lacanian concept* (S. Rosman, Tra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utler, R. (Ed.). (2023). *Rei Kawakubo: For and against fashion*. Bloomsbury Visual Arts.
- Cho, A. (2020). Smell and Jouissance: William Faulkner's "A Rose for Emily".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6, 141-157. doi: 10.21087/nSELL.2020.08.76.141
- Foster, H. (1993). *Compulsive beauty*. Cambridge, MA: MIT Press.
- Glowinski, H., Marks, Z., & Murphy, S. (Eds.). (2001). *A Compendium of Lacanian Terms*.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 Guervich, J. F. (1999). The jouissance of the other and

- the prohibition of incest: *A Lacanian perspective. Other Voices*, 1(3).
- Huh, G. Y. (2016).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jouissance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J. S. (2021). A study on culture and arts from the perspective of jouissance theory and aura. *International Journal of Event and Convention Research*, 17(1), 125–144. doi:10.31927/asec.17.1.7
- Kim, S. H. (2009). A study on the subject of Jouissance in Lacan's interpretation of Antigone. *Journal of Korean Theatre Studies Association*, 38, 35–69. doi:10.18396/ktsa.2009..38.002
- Lacan, J. (1998).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J. A. Miller, Ed.; A. Sheridan, Tra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Lacan, J. (2013).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1960: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J.-A. Miller, Ed.) (1st ed.). Routledge.
- Lacan, J. (2019). *Écrits* (J. Hong., J. Lee., H. Cho., & D. Kim, Trans.). Seoul:Saemulgyeol. (Original work published 1966).
- MacCannell, J. F. (2016). Refashioning jouissance for the age of the imaginary. *Filozofski Vestnik*, 37(2), 167–199.
- Nobus, D. (1998). *Key concepts of Lacanian psychoanalysis*. New York, NY: Other Press.
- Samuels, R. (2019). *Freud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cience of Everyday Life*.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Shreya S. (2020, August 17). Comme des Garçons SS97 by Rei Kawakubo. *Ayerhs Magazine*. Retrieved October 14, 2024, from <https://ayerhsmagazine.com/2020/08/17/comme-des-garcons-ss97-by-rei-kawakubo/>
- Yang, J., & Lee, M. (2023). A study on the aesthetic identity of modern eroticism fashion from the perspective of Jacques Lacan's unconscious theory: Focusing on jouissance & gaze theor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7(2), 124–139. doi:10.12940/jfb.2023.27.2.124

---

Received (November 01, 2024)

Revised (November 10, 2024)

Accepted (November 15, 2024)